



네팔에서 드리는 소식

한국은 추석이라 다들 고향에 내려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팔도 한국과 같은 추석이라는 더사인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10월 초에 있어서 아직은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네팔에서 조촐하게 추석 분위기를 내봅니다. 모든분들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waymaker 이다.

찬양 가사중에 waymaker라는 외국 찬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번안곡으로 자주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하는 가사인데, 성경속에서 여러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마도 길을 만드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월에 몇번에 걸쳐 설명드린 학교 부지에 관련해서 결론을 최근에 내었습니다. 결론을 내는 과정속에서 많은 에너지와 고민을 쏟아내느라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동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것처럼 멍하니 있다보니 소식을 전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혹 이전 편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있는 건물의 주인이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판매하게 되어서 학교 부지의 절반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주인이 땅을 팔터이니 너희가 사는게 어떻겠냐고 저희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했고, 그 제안과정중에 땅을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숙고와 기도끝에 땅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하였지만, 운동장이 사라진채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가 23년간 있던 자리에서는 있는 것으로는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건물도 나중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곳에 좀더 지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함께 이 고민의 과정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언약학교는 예배공동체이다.

언약학교의 기둥이자 특징을 뽑자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언약학교의 독특한 문화가 20여년간 세워온 우리의 조직문화이자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네팔에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할때도, 정부에서 기독교 행사를 하는것에 대해서 민감할 때에도 학교 선생님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에 한번도 타협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채플로 드리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할때도 이것이 우리 학교가 가지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현지 동역자들의 담대함은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매일 선생님들과 아침예배로 언약학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네팔의 기독교육을 위한 씨앗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입니다.





기도제목

1. 언약학교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수 있도록
2. 학교 선생님들 예배가운데서 성장할수 있도록